

## 地方化時代와 地方大學



江陵大學長 崔 至 薰

近年에 들어 ‘地方’, ‘地域’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었다. 地方文化, 地方大學, 地方自治制, 地域經濟, 地域開發 등 이른바 地方化時代를 맞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地方’ 하면 ‘촌스럽다’ 등 地方을 卑下하는 표현으로 나타내었지만 오늘에 이르러 이러한 표현은 拒否되고 거두어 들일 때가 된 것 같다. 地方의 相對概念인 中央과는 垂直的 關係로만 받아들여던 것을 보다 對等한 關係로 連結되었으면 하는 欲求가 表出되고 있다.

옛부터 ‘말은 濟州로, 자식은 漢陽으로’라는 말이 있다. 이는 바로 오랜 中央集權制度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모든 힘이 中央으로 모이고, 中央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과거의 歷史的 背景이나 時代의 立場을 보면 나름대로 中央集權制의 妥當性을 理解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中央과 地方과의 오랜 關係는 모든 면에서 中央의 過剩·地方의 不足이라는 不均衡의 모습으로 나타나 양측 모두에게 問題點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바로 中央에게는 더 이상의 발전을 막는 障礙物이 되었고, 地方으로서는 더 이상 기울 수 없는 限界에 부딪치게 하였다. 國家 全體를 위해서도 이같은 關係를 整理하고 새로운 關係를 定立해야 하는 때에 이르게 된 것이다. 中央을 위해서도 地方에 좀 더 신경을 쓸 때가 된 것이다.

그간의 持續的인 經濟開發의 結果로 人的·物的 資源이 地方으로 分散되면서 地方은 큰 變化를 서서히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交通과 通信 그리고 TV 放送網의 地方 擴散은 그간의 오랜 社會構造와 意識構造에 하나의 큰 衝擊이 되었다. 서로의 接近이 보다 쉬워지고 서로를 너무 자세히 알게 되었다. 地方도 中央과 差別 없는 待接과 生活 水準의 同等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실 한 國家가 疎外되는 구석이 없이 先進化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脆弱한 地域·産業·階層이 基本的인 欲求 充足은 물론 나아가 삶의 質(quality of life)을 저울질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地方自治를 實施하든 안 하든 地方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같은 機會는 주어져야 한다. 과거의 不備한 與件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不可能했던 制度나 政策 마련이 오늘까지의 努力으로 與件이 成熟되어 可能해졌다면 이 또한 바라던 바이고, 더우기 이 機會를 잘 살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國家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같은 轉換期的 時點에서 큰 役割을 分擔하여야 할 곳이 바로 地方大學이다. 한 地域이 開發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地域에서 삶을 營爲하는 사람들의 開發·發展 意志가 있어야 한다. 그 意志가 실제로 具現되기 위하여는 能力이 있는 人力이 필요함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바로 이러한 意志와 能力은 高等教育을 통해서 가능하며, 우리나라가 지난 30여 년 동안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부분이 教育에서 나온 것을 볼 때, 地方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大學教育을 외면하고는 쉽게 限界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地方化時代에 접어들면서 地方大學이 遂行하여야 하는 役割은 실로 막중하다. 國家가 經濟적으로 어렵던 時節, 좋은 教育을 中央에서 시킬 수밖에 없었던 때가 이미 아니며, 地方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좋은 教育을 받아 그 地方에 定着하며 奉仕하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地域開發의 方向은 ① 地方分權, ② 地域經濟의 自立, ③ 定住圈의 確立, ④ 地域文化의 創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方向 推進에 힘이 될 人力이 바로 鄉土 人材이다. 이같은 향토 인재가 地方으로서는 필요한 것이며, 그 育成을 地方大學에서 담당해야 한다. 大學은 대학대로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되는 制度和 政策은 지원되도록 정비가 되어야 한다.

地方大學도 大學의 3대 기능인 研究·教育·奉仕를 우선 그 地域을 중심으로 제대로 수행해냄으로써 地方發展에 큰 役割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資料가 國家 전체를 中心 對象으로 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地域別 資料에 대한 關心이 있어야 하겠다. 地方大學은 그 지역의 자료를 수집·정리·축적하여 資料銀行(data bank)의 役割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利用·分析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方向 提示와 具體的인 方案들을 마련하여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政治·社會·經濟的인 與件이 많은 變數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大學教育도 量的인 擴大에 따른 質的인 問題를 포함하여 解決해야 할 課題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해도 쉽게 될 性質의 것이 아니다. 地方도, 地方大學도 서로의 제 機能을 遂行하며 發展하여야 한다. 같은 空間에 있는 서로의 立場에서 關係 定立도 필요하다. 대학은 그 지역 발전에 公禱하며 先導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地域은 그 地方大學을 당연히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關係가 定立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豫想되나 克服하여야 한다. 때에 관계 없이 지금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大學의 秀越性 提高를 위해 大學人 스스로가 努力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